

정기명 여수시장, '여수형 기본소득 모델' 전략 수립

기본소득 핵심은 재원 마련
탄소중립 연계 등 방안 검토
국회의원·시의원 등과 협력
"독자적 모델 창출도 고려"

최근 여수시의회 등에서 '기본소득'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기명(사진) 여수시장이 '여수형 기본소득 모델' 전략 수립에 힘을 쏟고 있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여수형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연계' 등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략 수립 단계에 이르렀다.

현재 검토 중인 탄소중립 연계 방안은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블루카본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사업을 추진하여 발생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NGO와 정계 등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세를 신설하거나 관련 정책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제안과 논의가 현재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신재생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를 발표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갯벌과 해조류의 블루카본 국제 인증(IPCC)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참여도 활발하다. ㈜LG화학은 2026년까지 대경도와 남면 앞바다에 블루카본의 보고인 잘피 숲 10만㎡를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수시의회도 지난 5월 블루카본 지원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여수형 원도심 활성화 기본소득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023년부터 해상 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올해 블루카본 관련 '여수시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부시장 주재로 전략 회의를 개최해 향후 탄소중립과 더불어

여수형 기본소득 관련 대응 방침을 논의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 정부 정책 기조와 움직임을 주시하며 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기본소득 실현의 핵심은 재원 마련인 만큼,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심해 왔다"며 "언젠가 실현될 기본소득을 위해 정부 정책 기조를 주시하면서 추진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적 모델 창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소득 실현 주장은 지난 16세기부터 있었으나 재원 확보가 어려워 보편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석유를 판매해 지급하는 이란과 미국 알래스카 주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등 현재까지는 극히 소수 사례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여수=이정기 기자

보성전어축제 16일 개막 울포술밭해수욕장 일원서

보성군은 '5년의 기다림! 반갑다 전어야! 친구야 보성가자!'라는 주제로 16일부터 17일까지 울포술밭해수욕장 일원에서 '제16회 보성전어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보성전어축제는 지난해까지 코로나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다가 회천면민협의회(회장 문종복)의 주최로 5년 만에 열리게 된다.

특량만 청정 갯벌에서 자란 전어를 내세워 전어잡기 및 굽기 체험, 전어요리 시식, 축하공연,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를 구성하여 관광객들의 오감을 자극할 계획이다.

축제 첫날인 16일 17시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전어음식 시식회, 관광객 어울 한마당 행사가 진행된다.

17일에는 참가비 1만 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어잡기 체험, 전어구이 체험 및 시식회가 진행되고 15시부터는 특설무대에서 전어축제 노래자랑이 진행된다.

특히 해변에 설치된 개매기장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맨손으로 전어를 잡고,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는 체험은 보성전어축제의 백미로 올해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15일부터 축제기간 중 울포 남만 의거리 내에 신도불이 농산물 코너와 먹거리장터를 운영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부드러운 육질과 각종 영양이 풍부한 특량만 청정해역의 자연산 전어의 감칠맛 나는 참맛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고흥군, 3곳 무료 운영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여름철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어린이 물놀이장 3곳을 무료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고흥읍 주공아파트 및 도양읍 녹동어린이집 인근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 물놀이장'은 31일까지 운영하며, 도덕면에 위치한 '고흥만 수변 노을공원 물놀이장'은 25일까지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피부 보호를 위해 차광막을 설치해 이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이와 함께 온 학부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고 있는데, 인근 물놀이장 중 놀거리가 다양해 오랜만에 아이들과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며 "시설이 깨끗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 아이들과 함께 마음껏 즐길 수 있었고 편안하고 재미있게 놀다 간다"고 말했다.

고흥·도양 물놀이장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고흥만 수변 노을공원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과 기상특보 발효 시 또는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고흥만 수변 노을공원 물놀이장은 휴가철을 맞아 올해 개장 이후 3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송민섭 기자



지난 4일 순천시 삼산동행정복지센터는 '아름다운동행(회장 남상기)', '봉화로타리클럽(회장 조동기)' 2개 단체회원들과 함께 '연탄은 사랑을 싣고~' 이열치열 사랑나눔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삼산동, 사랑의 연탄봉사

취약계층 2가구 600장 전달

순천시 삼산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일 봉사단체인 '아름다운동행(회장 남상기)', '봉화로타리클럽(회장 조동기)' 2개 단체회원들과 함께 '연탄은 사랑을 싣고~' 이열치열 사랑나눔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휴일도 잊은 채 1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취약가구인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연탄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추운 겨울을 미리 대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독지가의 연탄 기부와 봉사단체의 노력, 행정의 협력이 어우러져 에너지 취약

계층 2가구에 600장의 연탄을 조달했다.

연탄 후원을 받은 분들은 "미리 후원해 주신 연탄 덕분에 올 겨울은 마음까지 훈훈하게 보낼 수 있어 든든하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최흥미 삼산동장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삼산동 마중물보장협의체'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힘을 모아 따뜻한 삼산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초등돌봄기관 대상 여름방학 기간 급식비 지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달 24일부터 여름방학 기간 동안 순천시 초등돌봄기관 이용아동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1인당 3500원(1식 7000원 기준 50%)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방학 중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아동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순천시 초등돌봄기관은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와 순천형초등돌봄 제공기관 3개소 등 총 7개소로 운영 중이며, 현재 138명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돌봄 수요가 많은 신대지구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개소를 위한 리모델링 등의 운영 준비가 진행 중이다.

초등돌봄기관은 지역중심의 돌봄체제로서,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6세에서 12세의 초등학생들에게 학습, 놀이, 돌봄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순천형초등돌봄은 전액 순천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체계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화순 농공단지 입주기업 '마나' 혁신제품 지정

내부 마감재 광촉매 황토 보드

광주지방조달청은 '2024년 제2차 혁신제품 지정심사'에서 화순에 위치한 (유)마나를 포함하여 3개 기업의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구매제도는 공공성과 기술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돼 기술혁신·초기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화순 동면농공단지에 위치한 (유)마나의 '다광성 광물질 구조의 광촉매 황토 보

드'는 황토를 사용한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로 단열과 내구성이 탁월하고 광촉매를 활용해 대기 오염 물질을 분해하는 친환경 제품이다.

마나는 2023년에 화순 동면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준불연 실내벽체마감 패널을 생산하고 있으며, 화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간식을 전달하는 선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능주면 능주성당 유아미사실 리모델링을 개조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마나 정숙 대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나눔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고흥군, 청년임대 스마트팜 올 첫 '토마토' 정식

입주 3년차 청년 농업인 김건호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3일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한 청년 농업인이 올해 처음으로 토마토 1만 주를 정식했다고 밝혔다.

청년임대형 스마트팜은 고흥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을 수료한 청년 중 성적이 우수한 청년들에게 영농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리온실 3동 5.92ha에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 양액 공급 시스템, 친환경에너지 냉난방 시스템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춘 스마트팜을 최



장 3년간 임대 해주는 사업이다.

입주한 지 올해로 3년 차가 된 청년 농업인 김건호(사진) 씨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2년간 농사를 지으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대 이상의 생산량을 보였다"며 "마지막 3년 차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정식 시기를 앞당기고 배지도 바꾸는 등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마지막 작기에는 더욱 많은 완숙 토마토를 생산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송민섭 기자